

상사채무 등의 소멸시효가 경과되면 법률적으로 지급의무 사라지므로 영업외이익으로 반영함

Q 10년이상 장기미지급 채무건에 대해서 잡이익 처리해도 되는지요?
현재 해당업체의 세무정보조회시 휴업중이고, 생산활동이 없습니다.

A 장기미지급의 경우 민법이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법률적으로 지급의무가 없어지므로 해당 시점에 영업외이익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5년이 경과되면 지급의무가 없어지므로 영업외이익으로 반영합니다.

전기이전에 자산으로 반영하지 못하였음을 발견한 경우 전기오류수정으로 자산반영하고 감가상각반영 가능함

Q 2015년도에 용접기라는 고정자산을 구입했습니다.
고정자산등록을 안 해놔서 결산 때 15,16,17,18년도 감가상각도 안 되어있고 법인세 신고할 때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합계표에서도 빠져있습니다.
고정자산 대장에도 없고 따로 고정자산 품목을 정리한 리스트도 없고, 2015년부터 2018년도 결산 신고시에도 빠진건지 결산보고서에 유형자산에 다른 기계장치들은 다 있어도 용접기라는 명칭으로 된 게 전혀 없습니다.
질문1.) 2019년 법인 결산시 용접기를 고정자산에 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질문2) 고정자산으로 잡을때 2015년부터 잡을 수 있나요? 그렇다면 그동안 못 한 감가상각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A 2015년부터 소급하여 고정자산으로 반영은 어려우며, 2019년에 전기오류수정으로 회계반영하면서 자산으로 등재하고 감가상각반영하시면 됩니다.
감가상각은 결산조정이므로 실제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반영한 경우에 손금한도내에서 인정되므로 귀사의 경우도 2019년부터 내용연수동안 계속하여 감가상각비 반영이 가능합니다.

중간정산이후 임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대해서만 근속연수 반영함

Q 임원 승진 시 입사일부터 임원 승진 전 까지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했고 퇴직소득세를 징수 납부했습니다.

몇 년 후 실제 퇴직 시 임원 퇴직금 규정에 의거 퇴직금을 지급할 때

1) 퇴직소득세 계산 시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일까지 근속기간을 계산하고 총 퇴직금(임원 승진 시 정산받은 퇴직금 포함)을 구해서 최종적으로 퇴직소득세를 구하는 게 맞는 건가요?

2) 임원의 승진은 실질적인 퇴사로 보기 때문에 최종 퇴직금 계산 시에는 임원 재직기간만 근속연수로 보는게 맞는건가요?

A 임원승진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실질적인 퇴직에 의한 퇴직금지급으로 인정되므로, 추후 실제 퇴직시점에는 임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근속연수 반영하여 퇴직금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회사는 감사계약체결일부터 2주내에 금융감독원에 선임보고하여야 함

Q 작년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감사인을 선임계약하였는데, 금감원 선임신고 따로 해야하나요? 한다면, 회사가 하는건지 감사인이 하는건지요

A 회사는 감사계약체결로부터 2주 이내 감사인 선임사실을 금융감독원으로 법정서류를 구비, 반드시 전자서류(외부감사인 선임보고시스템)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법정증빙 수취할 수 없는 위로금 등은 접대비처리해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Q 해외거래처 대표가 와병 중이시라 방문하여 위로금을 보내려고 합니다.

접대비로 처리가 가능한지와 처리가 가능하다면 증빙을 어떤 것으로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법정증빙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를 수취하지 못하는 접대비지출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래처에 지급하는 위로금에 대해서는 접대비로 처리해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별도의 증빙수취가 불가능합니다.